박지원 "北, 인적자원 · 능력 부족…정부, 광폭행보 조절"

"오는 6일 북미회담 성공해야 남북관계 개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의 인적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각종 남북 간 교류행사를 조절하고 북미회담 성공에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 등 여러 회담을 하고 진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미회담이 성공해야만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가 풀려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 김 미국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동한 것과 오는 6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3차 방북을 하는 것 등을 언급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고 말하고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년 내로 비핵화를 마쳐야한다'고 채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제 경험으로 보면 큰 이벤트를 하려고 할 때 인적자원과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며 "그래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 중국 방문 등 최근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처럼 '판문점회담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겸선(兼善)한 자세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이 성공해야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광폭행보를, 남북 간에 하는 것을 조절하고 북미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정부의 조금 더 성숙한 대북관계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정우택 "김무성, 보수 분열 책임져야" 탈당 촉구

"보수, 변화 못해 지금 현실 부딪혔다는 것 동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미래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태, 박완수, 심재철, 유기준, 윤상직, 원유철, 이종명, 정우택, 정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김무성 의원을 보수 분열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책임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 미래 포럼 3차 세미나'에서 "서청원 의원이 보수 맏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보수 분열을 책임져야 할 김 의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 의원의 탈당에 맞춰 김 의원도 비박계 수장으로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의원은 "보수가 변화를 못해 지금의 현실에 부딪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면서도 "홍준표 전 대표 때문에 이 당이 망가졌고 선거도 폭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초선 의원 7명이 김무성 의원에 책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대표적 상징인 서청원 의원과 보수 분열의 막중한 책임을 진 김무성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초선 의원 7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을 겨냥해 "물론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어떤 선거를 치렀을 때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범계 "부엉이 모임, 전당대회 전까지 중단해야"

이해찬 출마 여부에 "언급 자체 예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박범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범계 의원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의 비공개 모임인 '부엉이 모임'에 대해 "적어도 전당대회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에 그리 (안 좋게) 보여진다면 (중단해야 한다),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근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부엉이 모임의 취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에 계실 때 분열과 난맥상 등의 위기에 빛나는 역할을 해주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며 "그 노력과 헌신, 공로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엉이 모임은 패권이나 권력은 추구하지 않는다. 사적 이해와도 관계없다"며 부엉이 모임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당대표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엉이 모임 회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당 대표를 노린 '마케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냐"며 "그걸로 마케팅 하려면 저도 쥴 세우기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문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컷오프(예비경선)와 본선이 곧 단일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저를 포함한 두 분은 컷오프를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만약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단일화 필요성이 예측돼 진다면 저로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저를 위한 단일화는 결코 꿈꾼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당내 최대 관심사인 이해찬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거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절대적으로 완주하겠다. 그것이 박범계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 김성태 비난하다 상임위 배정 앞두고 눈치보기?

초재선 의원들, 하반기 상임위 배정 사활 건 상태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6.13지방선거 이후 심화됐던 자유한국당 내 계파 간 갈등이 조금 잦아드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눈치보기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다보니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당내 최대 이슈였던 친이-친박 계파간 갈등 양상이 이젠 휴화산 상태로 정지된 듯 하다.

실제 여야는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분리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문제를 놓고 각 정당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초재선 의원의 경우 하반기 상임위 배정에 사활을 건 상태다. 유권자인 학부모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어촌민들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인기 있는 상임위들이다.

상임위 활동을 잘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얻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상임위에서 의원 개개인이 열심히 활동해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만나 "상반기 원구성이 꽃놀이패라고 한다면 하반기 원구성은 그야말로 의원 개인의 생존에 달린 문제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6.13지방선거 이후 김 권한대행의 동반책임론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던 초재선 의원들이 유 입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상임위 배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 배정은 당 원내대표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초재선 외에도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에게도 이번 원구성이 중요하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존에 맡고 있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요구하고 있다.